

‘광주형 일자리’ 대타협 이루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가 24일 오후 광주 빗그린국가산업단지 방문, 부지 개발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로부터 산단개발 현황과 완성차 공장 부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민중 이해찬 대표 “공공임대·행복주택·유치원 제공” 약속
광주시-노동계-전문가 ‘원탁회의’ 이달 말 결론 내기로

현대 완성차 공장 설립 ‘탄력’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추진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과 광주시와 노동계 간 원탁회의의 구성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에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주거 지원 등을 약속했고, 광주시도 최근 노사민정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사업 참여 불참 이후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더욱 원만한 협조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광주형 일자리,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당정정협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광주형 일자리에 공공

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정부와 광주시가 제공할 수 있고, 단설 혹은 공공 유치원을 만들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앞선하는 고용센터, 체육시설 등 간접복지 형태의 지원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평균 임금보다 다소 낮은 적정 임금을 주는 대신, 사회 복지 혜택을 늘려주는 게 핵심인 ‘광주형 일자리’의 중요한 한 축인 임대 주택 등 복지 혜택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오후에는 현대차 완성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빗그린산단 부지를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현장 방문 이후 광주시의회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 반드시 광주에서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광주형일자리를 통한 자동차 생산은 한국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는 기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화를 재개한 광주시와 노동계도 온도차를 줄이고 있다. 지난 23일 대화를 시작한 광주시와 노동계는 이후 원만한 협의를 위해 의장 박병규(전광주시경제부시장), 노동계 운동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의 장·이기근 기아차 전 지회장, 자동차산업 및 노사관계 공익전문가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백승렬 어고노믹스 대표, 광주시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박남일 일자리경제실장 등 7명으로 ‘원탁회의’를 꾸리고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광주시와 노동계는 이번 달까지 2~3차례 회의를 열고 결론을 도출해내기로 했다. 첫 회의는 25일 오후 8시 비공개로 열린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이날 회견을 열고 “자식 둔 부모 입장에서 일자리 때문에 고동받는 청년들의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참여하게 됐다”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광주시와 노동계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서 올바른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현대차 완성차 공장을 만드는 것은 광주형일자리 근간이 되는 최종 사업이며, 노사 상생의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공공일자리 5만9000개 만든다 내달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가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고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앞당겨 2조3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 등을 서두르고, 연내에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하 일자리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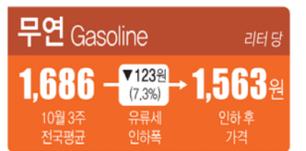
정부는 먼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연말까

지 청년이나 50~60대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필요시에는 일자리의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6일부터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5% 인하하기로 했다. 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면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포함했을 때 휘발유는 l당 123원, 경유는 l당 87원, LPG-부탄은 l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서울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셋째 주 전국평균 기준 l당 1686원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l당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LPG 부탄은 l당 934원에서 904

유류세 15% 한시 인하 효과
인하 기간: '18.11.6~'19.5.6



※부가가치세 포함 연합뉴스

원으로 3.2% 각각 인하되게 된다.

정부는 또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처리를 서둘러 기업들이 내년 상반기에 앞당겨 2조3천억원 이상을 막혀있던 투자프로젝트 조기착공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내에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지원에도 나선다. /연합뉴스

광주경찰청 치안 체감 안전도 전국 최하위권

17개 지방청 중 15위

지난해 9위서 6계단 떨어져

광주 5개 경찰서도 하락

광주지방경찰청의 치안활동에 대한 체감안전도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도 광주갑)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민이 느끼는 체감안전도는 지

난해 하반기 전국 9위에서 올해 상반기 6계단이나 떨어졌다.

경찰청은 전화 설문 등을 통해 전국 17개 지방청 소속 경찰서 252곳(전남 21곳) 주민 각 100명씩을 대상으로 거주지의 범죄·교통사고 안전도, 범죄·범죄수사도 등을 조사했다.

광주청에 대한 체감안전도는 2016년 상반기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뒤 하반기에 16위, 2017년 상·하반기에는 각각 13위와 9위로 개선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조사에서는 15위로 내려갔다.

광주청 상하 5개 경찰서 순위도 함께 하락세를 보였다. 광산경찰서가 지난해 하반기 131위에서 올해 상반기 244위로 내려가는 등 특히 하락 폭이 컸다. 광주청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순위가 내려간 지방청 중에서도 ‘집중 개선이 필요한 평균 대비 부진’ 평가를 받았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 치안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광주의 치안행정 향상이 결과로 증명되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월드시리즈 2차전 다저스 선발 류현진.

광주일보

5·18재단 '505보안대 집단회' - '구타에 굶주림 우리 동물이었다' ▶6면
위기의 다저스를 구하라 - 류현진 WS 2차전 선발 등판 ▶20면

전라남도

자녀가 피우는 우리집 행복꽃

아이들의 웃음소리, 축복받은 전남의 미래!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신생아 출생시 태아당 30만원 지급 ※ 시군별 출산장려금 별도 지급
다자녀 행복카드제	▶ 막내가 만 13세 이하(태아 포함)인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 발급처: 농협중앙회, 단위농협에서 발급 - 혜택: 영화관, 학원입종, 서적, 농협 마트·주유소, 놀이공원 등 할인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중위소득 180% 이하의 고위험 임산부 5대 질환 의료비 지원 ▶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120만원)
공공산후 조리원 운영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1호점(해남종합병원), 2호점(강진의료원) - 이용료(2주): 일반인 1,540,000원, 감염자 462,000원 ※ 3호점(완도대성병원): '19년 개원 예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 -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가사활동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의료비 지원(최대 15백만원)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자 지원(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약제·의료비)